식자재 값 폭등…경기 회복에도 웃지 못하는 외식업계

외식비 전망 넉 달 만에 반등…밤 9~12시 식당 이용액 58% 감소 식재료 원가지수 역대 최고치…aT, 자영업자 보호 지원책 마련돼야

정부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외식업 경기가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식자재 급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보호 대 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소 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비 지출 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는 전달보다 3포인트 오

외식비 지출전망CSI는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장기 평균치(2003년 1월~2021년 12월)를 기준 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외식비 지출전망지수는 지난해 11월 96에서 내 리막길을 걷다가 지난달 넉 달 만에 반등했다.

소비자들의 외식비에 대한 지출 심리 뿐만 아니 라 외식업 경기에 대한 전망도 다소 개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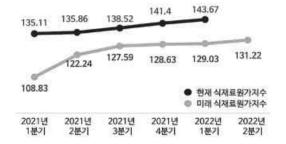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공개한 '2022년 1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70.84를 기록해 전년 4분기보다 0.50포인트 올랐다.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최근 3개월 (현재)과 향후 3개월(미래) 외식업계의 매출, 경 기체감 현황•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 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 지수는 2020년 4분기 59.33으로 내려앉은 후

식재료 원가지수



2분기 연속 상승했다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분기에 65.72로 다시 떨

이후 전년 4분기 (70.34)와 올해 1분기에 연속으 로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한식음식점업을 제외한 중식음식 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등 대다수 업종의 경기지수가 호전

한식음식점업은 전년 4분기 69.83에서 올해 1분 기 68.80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배달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업종의 특성상 회복세가 더딘 영향으로 분

올해 2분기 전망지수(다음 분기 경기 흐름을 예 상하는 지수)는 90.99로 1분기(80.33)보다 10포 인트 이상 올랐다.

이는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다양한 소상공 인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aT 측은 분석했다.

식재료 원가지수는 143.67로 지난해 4분기에 이 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식재료 원가 수준을 나타내며, 100을 넘 으면 원가가 올랐다는 뜻이다.

식재료 원가지수는 2020년 4분기(114.50) 이후 5개 분기 연속으로 상승했다.

aT 측은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우크라이나 사 태 여파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식료품 물가는 매 분 기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식 자영업자 보호 를 위한 지원 정책이 추가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광주·전남 음식점 들의 '밤 장사' 매출은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58%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이 올해 1~3월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음 식업종 카드(체크·신용) 이용금액을 산출해보니 총 38억47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1억9000 만원)보다 25.9%(-13억4300만원)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 난 2020년 1~3월보다는 무려 58.2% 감소한 금

1~3월 기준으로 이른바 '2차'가 시작되는 밤 9시 부터 자정까지 음식업종 카드 매출은 102억4900만 원(2019년)→92억100만원(2020년)→51억9000 만원(2021년)→38억4700만원(올해) 등으로 급 격하게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구의 날' 광주천 가꾸기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구의 날'(22일)을 하루 앞둔 2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의용소방대원과 광주동부소방서 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천 환경 가꾸기와 환경보호 홍보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제공〉

2금융권에 몰리는 대출 수요…예금은행은 감소

광주 비은행 신규대출 395억원

광주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2월 한 달 동안 2542억원 줄어들 동안 비은행 가계대출은 395억

광주 2금융권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새마을금고 와 저축은행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월 금 융기관 여·수신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액은 전달 말 기준 잔액보다 광주는 2147억원, 전남은 1612억원 등 3759억원

가계대출의 감소세는 예금은행에서 컸다.

지난 2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전달 말 잔액보 다 광주 2542억원·전남 1367억원 등 3909억원 감 소했다.

반면 광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2월 한 달 동안 395억원에 달하는 신규 가계대출이 발생했 다. 전남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245억원 이 줄었다.

광주 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 신규 가계대출 이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호저축은행 신규 대출은 101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신협 가계대출 은 10억원 늘었다.

반면 농협 등 광주지역 상호금융 부문에서는 전 달보다 신규 가계대출이 69억원 감소했다.

한은 측은 "지난 2월 광주·전남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을 통한 기업대출 신규 금액은 4201억원으로, 전달보다 2000억원 넘게 줄었지만 가계대출은 증 가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

농협 광주본부 '함께하는 농촌봉사단' 출범

6월16일까지 매주 봉사 활동

농협 광주지역본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함께하

는 농촌봉사단'이 두 달 동안 장정에 나섰다. 농협 광주본부는 21일 북광주농협 소속 조합원 의 블루베리 농가에서 '함께하는 농촌봉사단' 발 대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범농협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

농협중앙회는 이날 농작업 효율화를 위한 농기 계 전달도 함께 진행했다.

함께하는 농촌봉사단은 이날부터 오는 6월16일 까지 매주 목요일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일손 돕기

매회 40여 명이 참여해 못자리 설치와 온실 정 리 등을 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

허니버터칩 가격도 오른다…해태제과 8개 제품 가격 인상

해태제과는 내달 1일부터 허니버터칩, 웨하스 등 8개 과자 제품의 가격을 평균 12.9% 인상한다 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운감자와 웨하스는 기존 900원에 서 1000원으로, 자가비와 허니버터칩, 롤리폴리 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칼로리바란스는 1700원에서 2000원으로, 후렌 치파이는 3800원에서 4200원으로 인상된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밀가루, 감 자, 유지류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불가 피하게 제품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섬유역 상생협력위원회 정기회의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김현식·앞 줄 오른쪽 네 번째)는 21일 '2022년 영·섬유역 상

생협력위원회 1차 정기회의'를 열고 섬진강 수해 보상 진행현황과 유역 물관리 현안해소 등 지역밀착형 안건을 논의했다.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제공〉

